음란물, 자위 그리고 기타 성적인 죄악들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들은 온갖 꾀를 부렸도다. (전도서 7:29)

서론

질문: 아이들에게 성적인 죄에 대해 언제부터 가르쳐야 할까요?
답변: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18 세든 13 세든 너무 늦습니다. 성인이 저지르는 모든 성적인 죄(사실 모든 죄)는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우고, 교정받고, 훈육받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자녀에게 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음란물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아이의 마음에 매여 있다… 잠언 22:15

음행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음은 악이다. 악의 근원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행과 모든 어리석음의 근원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라... 디모데전서 6: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23)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10)

사람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자위행위, 음행, 간음, 음란행위 등과 같은 성적인 죄를 아직 짓지 않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이미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율법 전체를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무리 일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시험(성적인 죄를 포함하여)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셨습니다(히브리서 4:15).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보라,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시편 127:3

매를 아끼는 자는 아들을 미워하는 자요,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일찍부터 징계하는 자니라. 잠언 13:2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담대하고 그의 자손은 피난처를 얻으리라. 잠언 14:26

소망이 있을 때에 네 아들을 징계하고 그의 부르짖음에 마음을 쓰지 말라. 잠언 19:18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깃들어 있으나 징계의 매는 그것을 쫓아내리라. 잠언 22:6,15

아이를 징계하기를 아끼지 말라 매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매로 때려도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리라. 잠언 23:13-14

매와 책망은 지혜를 주나 제멋대로인 아이는 어머니에게 수치를 안겨 주느니라. 네 아들을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게 안식을 주며 네 영혼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 29:15,17

네 모든 자녀가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요 네 자녀에게 큰 평화가 있으리라. 이사야 54:13

네 아들을 징계하고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방탕한 행실이 네게 걸림돌이 되리라. 집회서 30:13

용어 정의

음란물 - 성기 또는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보여주는 인쇄물 또는 시각 자료로, 미적 또는 정서적 감정보다는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자위 - 성적 쾌감을 위해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
관음증 또는 마음의 간음 - 타인이 나체이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훔쳐보며 성적 쾌감을 얻는 행위
간음 -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성관계
간통 - 기혼자와 배우자가 아닌 사람 사이의 자발적인 성관계
매춘 -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행위 또는 직업
매춘업 - 문란한 성행위, 매춘부와의 교제 등 성적으로 방탕한 행위 음욕
- 강한 성적 욕망; 정욕
방탕 - 육체적 쾌락, 특히 성적 쾌락에 대한 극단적인 탐닉; 성행위, 마약, 술 등을 포함하는 행위로, 종종 부도덕하다고 여겨짐
음란함 - 음탕하거나 외설적인 특성;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특성
음란 - 외설 또는 저속함 저속한 성적 성격 또는 행동,
문란한 성행위 - 여러 성적 파트너를 갖는 것; 한 명 또는 소수의 성적 파트너에 국한되지 않음,
동성애(LGBTQIA+) - 같은 성별 또는 젠더 구성원 간의 성적 매력, 낭만적 매력 또는 성적 행위,
근친상간 - 결혼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혈연관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간의 성관계;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와 성관계를 갖는 범죄,
강간 - 동의 없이 사람에게 행해지는 성관계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침투를 포함하는 성폭력의 한 유형,
집단 강간 -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차례로 강간하는 것; 파트너가 바뀌는 성적 난교 , 수간
- 사람과 동물 간의 성행위,
도착증 -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특징으로 하는 상태, 일반적으로 극단적이거나 위험한 행위를 포함함,
항문성교 - 항문 또는 구강 성교를 포함하는 성행위; 항문 성교와 구강 성교,
수간 - 인간이 인간이 아닌 동물에 대해 느끼는 성적 매력, 동물에 대한 성적 환상을 경험하거나 실제로 성적 접촉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음
집단 성행위 - 동시에 여러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예: 쓰리섬) 난교
- 과도한 음주와 무분별한 성행위가 특징인 난잡한 파티
스윙잉 - 집단 성행위 또는 집단 내에서 성적 파트너를 교환하는 행위 (특히 습관적으로)
노출증 - 자신의 성기나 기타 은밀한 신체 부위를 드러내거나 공공장소에서 성적으로 행동하려는 강박

페티시즘 - 만족감이 특정 사물이나 행위, 또는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와 강하게 연결된 성행위 형태
마찰음란 - 성적 쾌감을 얻거나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기를 성적인 방식으로 만지거나 문지르는 행위
마조히즘 - 자신의 고통이나 굴욕에서 쾌감, 특히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
사디즘 - 타인에게 고통, 괴로움 또는 굴욕감을 가하는 것에서 쾌감, 특히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

성경 구절

: 손으로 아무 죄악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한 내시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는 믿음의 특별한 은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가 마음에 더욱 기뻐하는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솔로몬의 지혜 3:14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나 계시며 악과 선을 다스리시느니라. 잠언 15:3

너희는 옛적에 이르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음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고 던져 버리라 이는 네 몸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 버리고 던져 버리라. 이는 네 몸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27-30)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행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드러내는 것은 곧 빛이니라. (
에베소서 5:11-13)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는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5-6

자비와 진리로 죄악이 제거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느니라. 잠언 16:6 의

는 나라를 높이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34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4

여자와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짐승과 동침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눕지 말라. 이는 부끄러운 것이니라. 레위기 18:22-2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음란한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의 용도를 바꾸어 부자연스러운 일을 행하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버리고 서로 음욕을 품어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26-27

너희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9-10)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8-20)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가지 말라. 그것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아서서 떠나가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신다. (잠언 4:14-17)

레위기 18: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라
3 너희가 전에 살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율례도 행하지 말라
4 너희는 나의 법도를 행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 안에서 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6 너희는 가까운 친척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7 네 아버지나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네 어머니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
8 네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이다.
9 네 누이,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의 벌거벗은 몸은 집에서 낳았든 밖에서 낳았든 간에 드러내지 말라.
10 네 아들의 딸이나 네 딸의 딸의 벌거벗은 몸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네 벌거벗은 몸이기 때문이다.
11 네 아버지의 아내의 딸, 곧 네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네 누이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12 네 아버지의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네 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이니라.
13 네 어머니의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네 어머니의 가까운 친척이니라.
14 네 아버지의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의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그녀는 네 고모이니라.
15 네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16 네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네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17 너는 여자와 그 딸의 알몸을 드러내지 말라. 또한 그 아들의 딸이나 그 딸의 딸을 데려다가 알몸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은 그 여자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이는 악한 일이다.
18 너는 아내를 그 여자의 자매에게 데려가서 괴롭히거나,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

알몸을 드러내지 말라.
19 또한 부정한 여자를 가려져 있는 동안에는 그 여자의 알몸을 드러내려고 가까이 가지 말라.
20 더 나아가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21 너는 네 자손을 몰렉에게 불에 태우지 말라. 또한 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2 너는 여자와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23 너는 짐승과 동침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24 너희는 이런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이 이런 일로 더
럽혀졌느니라.
25 땅이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그 죄악을 그 땅에 갚으리라. 그러면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
내리라.
26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너희 민족 사
람이나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나그네도 그렇게 하지 말라.
27 이는 너희 전에 살았던 이 땅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
문이니라.
28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 전에 살았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과 같이.
29 누구든지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30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율례를 지켜서 너희 전에 행했던 이런 가증한 관습을 행하지 말고 그
것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교만에는 파멸과 많은 고통이 있고, 음란에는 쇠락과 큰 궁핍이 있다. 음란은 기근의 어머니이다. (토빗 4:13)

그러나 그는 또한 "토끼도 먹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토끼는 해마다 번식처를 늘리고, 사는 해마다 번식처를 늘립니다. 하이에나도 먹지 말라. 다시 말해, 간음하지 말고, 남을 타락시키지 말라.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왜 그래야 합니까? 하이에나는 해마다 성별을 바꾸어 수컷과 암컷의 교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족제비도 미워했습니다. 입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입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음란한 여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족제비는 입으로 임신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일반 서신 9:7-9

음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빵이 달콤하여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할 것이다. 결혼을 파기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누가 나를 보겠는가? 나는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성벽이 나를 가리고 있으니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자는 단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할 뿐, 주님의 눈은 해보다 만 배나 밝아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며 가장 은밀한 곳까지 살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아셨고, 만물이 완성된 후에도 모든 것을 살피셨다. 이런 자는 도시의 거리에서 벌을 받을 것이며, 자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잡힐 것이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는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첫째, 그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어겼고, 둘째, 자기 남편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그녀는 간음하여 음녀가 되어 다른 남자에게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회서 23:17-23)

내 영혼이 미워하고 그들의 삶을 몹시 싫어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교만한 가난한 자,

거짓말하는 부자, 그리고 음란한 늙은 간음자입니다. (집회서 25:2)

창녀는 침과 같으나,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망대와 같습니다. (집회서 26:22)

고백, 회개, 그리고 회복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재앙에 빠지리라. (잠언 24:16)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 (잠언 28:13)

내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말라.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내가 어둠 속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의 진노를 받을지라도 그가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공의를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그가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내가 그의 의를 보게 되리라. (미가 7:8-9)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울 은혜를 받읍시다. (히브리서 4:15-16)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9)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돌아오게 하시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셨느니라. 주님께로 돌아와 죄를 버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죄를 덜 지으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돌아와 불의를 떠나라. 그분께서 너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건강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너는 가증한 것을 맹렬히 미워하게 하실 것이다. (전도서 17:24-26)

내 아들아, 네가 죄를 지었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뱀을 피하듯 죄를 피하라. 죄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물릴 것이니,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아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21:1-2)

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저의 허물을 지워 주소서. 저의 죄악에서 저를 깨끗이 씻으시고 저의 죄에서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제가 저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는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심판하실 때 깨끗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죄악 중에서 저를 잉태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마음속 진실을 원하시나이다. 은밀한 곳에서 지혜를 알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사 내가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눈보다 희게 하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사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내 죄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허물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

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앞에서 나를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고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큰 소리로 찬양하리이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나타내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드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으리이다.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소서. 그러면 주께서 의로운 제물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바치리이다. 시편 51 편

예수께서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나오시니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몰려왔다. 예수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 마치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묻자 예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로 한 사람씩 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남으시고 그 여자만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1-11

로마서 7:7-25
7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8 그러나 죄는 율법을 핑계로 내 안에서 온갖 정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죽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9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오자 죄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죽었느니라.
10 생명을 위하여 제정된 계명이 내가 보니 사망에 이르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11 죄는 계명을 핑계로 나를 속여 죽였습니다.
12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13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선한 것을 통해 내 안에서 죽음을 일으키고, 계명을 통해 죄가 더욱 악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4 율법은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 있습니다.
15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행하노라.
16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 나는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17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다.

18 내가 알기로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의지는 내게 있
으나, 어떻게 행해야 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19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한다.
20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다.
21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법칙을 발견하였다.
22 속사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노라.
23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며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
의 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을 보니,
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25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
나님의 율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율법을 섬깁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13)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양 시장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베데스다라 불리며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병약한 사람들, 맹인, 절름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으면, 물이 휘저어진 후에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았습니다. 거기에 삼십팔 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오랫동안 그런 상태였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약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물이 휘저어질 때 저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나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쳐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내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네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느냐?" 고쳐진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네게 닥칠 것이다." (요한복음 5:1-14)

마음을 다하여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잠언 4:23)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풍성히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6-7)

모든 악의 모양을 피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22)

무엇보다 먼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이루셨으며, 그분은 크셔서 누구도 헤아릴 수 없으시다. 어떤 말로도 정의할 수 없고, 어떤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경외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악을 떠나라. 이것들을 지키고 모든 정욕과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입으라. 그리하면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헤르마스 2 권 1:1-5)